

2020년 11월 29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8편 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시편 48편 1절)

◎ 찬 송 / 272장(통330)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20절(신약p.330)

10.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1.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14.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5.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17.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8.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 말씀선포 /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데살로니가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바울에게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사도바울의 가르침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그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 내는 교회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종교적 탄압은 없다할지라도 개인의 따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과연 데살로니가교회처럼 승리하기 위해 본받아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바른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 데살로니가교회는 사도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렇듯 사도바울의 확신에 찬 메시지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선행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씨 부리는 자의 비유는 이러한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의 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선하고 바른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순종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순종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됩니다. 믿음을 들음에서 낳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도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 원한다면 성도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 속에 행하여 생명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18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고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며, 회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언약의 율법입니다. 이 말씀을 성도는 바른 태도로 배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 믿음을 본받는 바른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은 그들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유대 성도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기존에 섬기던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증거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적개심은 결국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믿음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은 동일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 준 믿음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본을 수많은 시대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 준 이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장차 우리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여준 믿음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본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늘 이 시대를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도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 주신 바른 믿음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했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강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며 더욱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57장(통39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폐 회 / 주기도문